

존 오스왈트 박사, 이사야, 세션 27, 이사야. 56-57

© 2024 존 오스왈트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이사야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John Oswalt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56장과 57장, 27회기입니다.

이제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나는 나 자신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전 학생은 이사하기 위해 짐을 꾸리고 있었고 발 밑에 어린 아이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계속 바쁘게 지낼 수 있도록 뭔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학교에서 배운 카세트 테이프 몇 개와 카세트 플레이어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섯 살 난 아들에게 하나를 주면서 잠시 후 다른 일을 하다가 익숙한 목소리를 듣고 밖을 내다보았더니 아들이 카세트 플레이어를 들고 계단으로 올라왔다고 말했습니다. 주목. 그리고 그는 내가 히브리어 주석 과정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섯 살짜리 아이는 '아빠, 이 아이는 잘해요'라고 했어요. 그 아이는 천재였거나, 아니면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아이였거나, 그렇습니다. 내가 그걸 이력서에 넣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성취할 수 있게 해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에너지, 건강, 방향 및 동기 부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을 맞이하는 지금, 지금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이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말씀에 겸손히 임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 당신의 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왔습니다.

아, 읽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결국에는 오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는 1장부터 5장까지에서 문제와 종됨의 약속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토라가 세상에 나갈 수 있는 순수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반역적이고, 눈멀고, 오만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저 이스라엘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사야가 자신의 경험을 모델로 제시하는 6장에서 그 답이 종으로의 부르심이라고 여러분에게 제안했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나라에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면, 입술이 부정한 나라도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세상에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7장부터 39장까지에서 섬김의 기초가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누군가 그곳의 문을 열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까? 감사 합니다. 인류 국가에 대한 신뢰와는 대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교훈을 배웠다고 해서 항상 그렇게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40장부터 48장까지에서 은혜, 사람들이 포로 상태에 있을 때 봉사하려는 동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의 종으로 초대하여 신들에 대한 소송에서 자신의 증거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의문이 제기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고 간단하게 선언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대답도 은혜임을 보았습니다.

은혜가 섬김의 동기라면 그것은 또한 섬김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49장부터 55장까지에서 누가 이상적인 이스라엘인지, 이스라엘이 결코 스스로를 위해 될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을 위해 될 종이 밝혀지는지를 보았습니다. 자, 그럼.

책이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말은, 그들은 종의 희생으로 가능해진 하나님의 선택된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5장은 매우 높은 음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11개의 챕터가 남았습니다. 56세부터 66세까지입니다.

자, 이것이 신학교 수업이었다면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스스로 알아내도록 할게요. 하지만 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받아야 합니다.

56장부터 66장까지의 이 장들을 읽을 때 당신은 62장 이후에 이상한 반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63장, 64장, 65장, 66장은 다소 암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나에게 독창적이지 않습니다. 이사야의 또 다른 학생은 몇 년 전에 그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했을 때 갑자기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물론이죠.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기술적으로 교차(chiasm)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즉, 상승하는 부분은 하강하는 부분과 평행합니다. 이 부분의 정점에는 61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있는데, 이 구절들은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기 위해 사용하신 구절들입니다.

주님의 영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서 잘못된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60장, 61장, 2장에서 그 양쪽에는 시온에서 빛이 돋는 그림이 있습니다. 59장과 63장 첫 장에는 백성의 적을 멸하러 오시는 신성한 전사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59장 15B부터 59장 끝까지, 63장 1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그 양쪽에는 E, D, C가 있습니다. B가 옵니다. 사람들이 정의를 행할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D 프라임입니다. 실례합니다.

이것은 D 프라임입니다. 이것은 C 프라임이고 이것은 B 프라임입니다. 그리고 맨 처음과 맨 끝에는 다시 한 번 여기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의로운 외국인, 외국인 여러분. 그래서 그것은 A와 A소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과 끝을 두 배로 늘리고 기름부음받은 메시아의 정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의로운 이방인, 의로울 수 없는 백성, 신의 전사, 시온에서 돋는 빛, 메시아, 시온에서 돋는 빛, 신의 전사, 의롭지 못한 자, 의로운 이방인. 이제 우리는 이것을 진행하면서 다음 4주 동안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이런 종류의 장치가 클라이막스에 대한 이해를 유지하면서 이것이 무엇인지 강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책이 단순히 56, 57, 58, 59, 60이었고 거기에서 멈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보십시오. 오, 우리는 메시아 계시의 놀라운 절정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메시아는 그의 백성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세상이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정점을 유지하면서도 문제가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2장에서 우리가 있었던 곳으로 바로 돌아갑니다. 말일에 여호와와 그의 산이 굳게 서서 가장 높은 산이 작은 산 위로 솟아오르며 모든 나라가 그리로 몰려오리라 많은 백성이 와서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그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로다

그래서 실제로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왜 오셨나요? 아니요, 그분은 그분의 특별한 백성인 우리를 어려움에서 구출하시고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니, 그게 그가 온 이유가 아니야.

따라서 이 섹션을 시작할 때 이는 단지 개요일 뿐입니다. 작업할 때 이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음 주 현충일입니다. 죄송합니다. 58장과 59장을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 부분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다음 주, 즉 6월 첫째 주에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여러 면에서 반복하는 63장부터 66장까지 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한 라운드를 다룰 것입니다. 그런 다음 돌아와서 6월 10일, 즉 6월 두 번째 월요일에 60부터 62까지 마무리하고 연구를 완료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이상한 구조 때문에 우리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이유입니다. 좋아요, 질문, 의견, 충분히 명확해졌나요? 좋아요, 주저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밤은 56시부터 57시까지입니다.

56장부터 66장의 배경은 포로기 이후 기간에 유대 사람들에게 언급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믿어진다. 그 말씀은 단순히 타고난 권리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의로운 행동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결론은 그들이 바빌론에서 구출되었을 때 이끌어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이 의롭게 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는 방금 배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지 않나? 그러나 땅으로 돌아와도 행동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는 다양한 지점에서 그들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들의 문제를 처리하실 것이며 그들을 통해 열방의 빛이 되실 것이라고 믿도록 격려하십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키루스를 제외하고는 40~55년과 같은 구체적인 역사적 세부 사항이 없습니다. 포로와 관련된 구체적인 역사적 세부 사항이 없습니다. 왜? 내 생각에는 이사야가 그들을 몰랐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영의 영감으로 그는 미래의 상황에 대해 말할 수 있었지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포로기 이후 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영감을 통해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해하고 신학적으로나 행동적으로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예? 지금 현대에도 그런 패턴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그들은 그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것을 자신들의 장자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시작한 곳이지만 그들은 그것을 대다수의 세속 국가에 보내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연결하지 않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그들은 홀로코스트를 그에 대한 정당화로 사용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기를 원하십니까? 괜찮아. 우리는 그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바빌로니아인들의 손에 끔찍한 일을 겪은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끔찍한 일을 겪은 핵심 사람들이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다를 거예요." 현대 이스라엘에서는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56장 1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두 그룹이 여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3절, 그는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외국인.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인 3절도 있습니다.

내시, 외국인, 내시. 이제 신명기 23장 7절과 8절에서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어떤 관계도 맺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구별하실 것이라 말하지 말지어다

내시들이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과 내시들이 행하고 있는 행위 중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둘째, 옳은 것을 선택하라. 정의를 유지하십시오. 언약을 지키라.

즉, 객관적이고 의로운 행동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안식일에 대해 더 이야기할 테니 지금은 거기에 기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 행위가 나와 같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공부를 통해 여기에 오셨다면,

언약의 목적은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제가 주장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행위를 본받는 것입니다. 당신은 신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의 지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언약을 지키는 이 사람들과 내시들과 외국인들을 환영하라. 그들은 나에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니까? 나는 그것이 정확히 맞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제단에 가본 적이 있다. 나는 교회에 가입했습니다. 나는 택함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내 언약을 지키라. 오늘 당신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분명히 우리는 관자놀이 모퉁이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신뢰하고 순종합니다. 또 뭐야? 오늘날 성약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괜찮은.

하나님과 서로를 존중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울이 말했습니다.

율법 전체는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괜찮은.

당신은 뭔가를 배웠어요, 프레드. 사랑, 애정, 정서, 느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한 축입니다. 다른 극은 무엇입니까? 순종, 그렇습니다.

그런데 흔히 쓰이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계적인 문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불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랑은 매우 쉽게 감상주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에 대해 너무 따뜻하고 모호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용서한다고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지옥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같이 가는 거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요한이 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비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을 노엽게 하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정죄에 대한 두려움은 지옥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주님과 관계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은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약 안에 산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 이름을 헛되이 일컫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다음번에 이것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일요일에 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당신의 물건을 가져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아내에 대한 믿음을 지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용을 주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와 기쁨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러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문구인 것 같아요. 좋아, 계속해서 노력하자.

아니요, 잠시 돌아가서 한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자신을 예배하는 데 외국인과 내시들을 포함시키려고 의도하셨다면, 왜 처음에 그들을 제외하셨을까요? 내 말은, 해리 에머슨

포스딕(Harry Emerson Fosdick)은 아, 신명기는 틀렸고 이사야는 점진적인 계시 때문에 신명기를 수정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글쎄, 나는 잠시 동안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신명기도 옳고 이사야도 옳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어치? 나는 그것이 그것의 일부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예. 예. 이교도 숭배.

다른 건 없나요? 다른 아이디어가 있나요? 그는 자신의 백성을 제쳐두고 그들이 메시아가 올 계통임을 그들이 알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예. 예.

제가 이 모든 것에 추가하고 싶은 유일한 것은 교육의 기초에 있을 때 미묘한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포인트를 주기 위해 가능한 가장 뚜렷한 색상으로 칠합니다. 그래서 내시들이여, 나는 너희 몸을 너희가 스스로 조작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작하지 마세요. 당신은 어떻게든 자신을 박탈하고 나에게 더 잘 받아들여지도록 만들기 위해 당신의 몸에 어떤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명기는 또한 탁월함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셨고 우리가 온전한 사람들로써 그분을 예배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점을 강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영적인 온전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 물리적인 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구약성서에서 그것을 반복해서 봅니다. 구약에서는 어떻게 복을 받으니까? 당신은 부자가 되고, 많은 땅을 갖고, 많은 자녀를 낳고, 늙어갑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축복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면으로부터 축복하지 않으시면, 온 세상에 당신을 만족시킬 만한 물건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유아들에게 영적인 축복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체적인 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좋아, 이제 계속 밀어붙여보자. 7절과 8절은 유대 사람들과 그들의 성전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모든 민족을 위한 성전입니다. 집 이름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집.

나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서 이제 그가 십만 마리나 그와 비슷한 엄청난 숫자의 희생을 바쳤다는 사실은 항상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성전을 장소로 삼는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희생의. 그것은 전적으로 기도의 장소입니다.

나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 나는 이 사원에 가서 이러한 의식을 행하고 신을 조종하고 내 마음을 나 자신을 위해 간직할 것이다. 아니, 아니, 그렇지 않을 거야.

관계의 장이며 관계는 소통을 통해 표현된다. 그 집은... 네. 절대.

아뇨, 이번 주에 통곡의 벽에서 마침내 여성들이 통곡의 벽의 특별 구역으로 갈 수 있게 허용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놀라운 발전입니다. 정교회는 이곳에서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새로운 시예요.

응. 헤롯의 성전. 이것이 성전 건물이다.

이곳은 제사장들의 뜰이다. 이곳은 제단이 있던 곳이고 이곳은 남자들의 뜰이다. 이것은 여자의 뜰이요, 이방인의 뜰이니라.

그리고 우리는 이 선을 통과하는 모든 이방인이 자신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경고의 돌 중 하나를 여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로 가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구별의 수준. 좋아요.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이방인으로서 여기에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부정하다. 따라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히브리 여자들은 이방인 남성들에 비해 덜 부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66장 결론, A-프라임 부분 18절 이하를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의 행위와 생각을 알고 있다. 모든 나라와 방언을 모을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와서 내 영광을 보리라.

이사야서 6장을 기억하시나요?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그것을 볼 날이 오리라. 내가 그 가운데 표식을 세워 놓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서 살아남은 자들을 활을 당기는 다시스와 풀과 룯과 두발과 야완과 먼 해변들, 곧 내 명성을 듣지도 못하며 내 영광을 보지도 못한 이방인들에게 보내리라. 그리고 그들은 민족들 가운데서 내 영광을 선포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들은 모든 나라에서 여러분의 모든 형제들을 주님께 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문맥상 그들 중 일부는 국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네 명의 제사장과 네 명의 레위인도 데려가겠다. 우와.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지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월삭과 안식일마다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든 육체가 내 앞에 나아와 경배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6 시작, 1~8, 끝 66, 18~23.

이 모든 것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는 모든 나라가 와서 여호와와 영광을 보게 하려 하심이니라 괜찮은. 이제 이 모든 말을 마치고 56절 1절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구절의 주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호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공의를 지키며 공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속히 이르고 나의 구원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자, 그 문장의 논리적 연결은 무엇입니까? 구원이 다가오고 있으며, 그 값없는 구원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정의와 정의.

예. 예. 논쟁보다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그것은 정반대입니다. 나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공의와 의로 그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제가 여러 번 말했던 것을 기억해 보세요.

정의라는 단어의 문제점은 히브리어 개념에 비해 그 폭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사상에는 법적 정의와 형평성이 포함됩니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보다 더 큼니다.

그것은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신성한 질서입니다.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신성한 질서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신성한 질서에 따르면, 무고한 사람들의 정의를 받을 권리를 박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어로 그 단어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한 법적 정의보다 더 큼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의 모든 서신에서 강조하고 있는 요점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충분히 선함으로써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오래된 시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그로부터 구출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당신은 이전의 최악된 삶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구원 신학에 빠져 바울이 거의 모든 서신에서 지적하고 있는 전체 요점을 놓치게 될 것인지는 나에게 놀라운 일입니다. 당신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살지 마세요.

당신은 그런 식으로 죽었습니다. 이제 죽어라. 당신은 그 낡은 옷을 벗었습니다.

이제 떼어내세요. 당신은 이 새 옷을 입었습니다. 이제 입으세요.

잘못된 정의와 정의의 삶이 은혜에 의한 구원의 논리적 결론입니다. 좋아, 서두르자. 56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그 사람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눈먼 파수꾼들, 이 과묵한 개들, 식욕이 왕성한 개들, 어리석은 목자들. 그 사람은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국민의 지도자들이죠,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왕은 없지만 총독은 있습니다.

네, 실제로는 별로 변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과거에도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통치자들에게 엄한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그들에게 엄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살고 있으며 더 이상의 정치적 발언은 자제하겠습니다.

이제 57, 1, 2를 보십시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나는 그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아니, 아니, 그냥 가자, 무슨 일이야? 의로운 사람들이 멸망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그 거짓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의인이 왜 죽는가? 악에서 구원을 받고, 재난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의로운 사람들이 죽으면 얼마나 자주 그런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비난합니다. 여기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 좋은 친구 Everett Hunt가 63세에 세상을 떠났을 때를 기억합니다. 젊고 어린아이였는데, 당시 저는 '하나님, 누군가를 데려가야 한다면 나에게 최종 후보가 있습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을 기억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에 대해 너무 멀리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스러운 기독교인 아이가 16세에 죽자 우리는 '아, 아니, 어쩌면 그게 최선이었을지도 몰라'라고 말합니다. 세계.

그 소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에게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그는 이 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글썄, 내가 당신에게 뭔가를 말해 줄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일 때문에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계십니다.

와우 와우. 좋아요, 계속 추진하세요. 이제 이 사람들, 귀환한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의롭거나 특별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올바른 무리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업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는 음녀의 아들들이니라 시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호세아를 기억하시나요? 호세아는 창녀와 결혼하여 자녀를 두었지만, 그들은 호세아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 그림은 해 아래서 다른 모든 연인과 매춘을 한 여자로서의 시온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장자권을 너무나 자랑스러워하지만 사실, 당신의 장자권은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에서 그는 3절부터 13절까지를 묘사합니다. 그는 그들의 종교적 관습을 기본적으로 이교적 우상 숭배로 묘사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언어는 이 책의 앞부분과 에스겔서에서도 꽤 친숙합니다.

이제 제기되는 질문 중 하나는 제가 배경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우상 숭배를 어느 정도 치유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부분은 포로 기간 동안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더 기울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상 숭배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사야가 왜 이것을 여기에 가져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좋아요, 그들은 아직도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교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여러분에게 너무 많은 팝업 퀴즈를 묻는 것은 선생님으로서 보기에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꺼려지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교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교주의, 이교 숭배는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훌륭해요, 훌륭해요.

아마도 나는 교직에 남을 것입니다. 나는 나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 하나님을 조종하기 위해 종교적인 일을 합니다. 그것은 이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묻고 있는 이유는 이사야가 그들의 정통 종교 관습이 본질적으로 이교적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마치 그들이 실제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주의 복미 개신교에서 이교는 어떤 모습일까요? 십일조를 바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야.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니요, 그것은 성경적입니다. 단식은 어떻습니까? 내가 충분히 교회에 가면 모든 죄인을 정죄합니다. 예, 예, 예.

이 모든 방법으로 취업을 해야 하므로 하나님, 앞으로 한 달 동안 매일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아뇨, 그런 말은 안 했어요. 그는 생산하는 데 한 달이 있습니다.

응, 이교도. 응, 맞아, 맞아. 응, 응, 응, 응.

기계식입니다. 올바르게 수행하면 매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작동하지 않았다면 올바르게 수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런닝머신을 달리지만 아무것도 생산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비이교적 태도란 무엇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신뢰, 신뢰.

복종. 왜 십일조를 해야 합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응, 그거 꽤 좋은데. 사랑으로는 어떻습니까?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그 소녀와 사랑에 빠진 아이는 '흠, 맥도날드만 먹으면 괜찮을지 궁금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당신은 과시하거나 체커처럼 고급스러운 곳으로 가거나, 아니, 다시 말하지만, 당신이 사랑한다면 내가 얼마나 적게 주고 감당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것입니다. 오, 얼마나 보여줄 수 있나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세상의 모든 차이. 같은 일을 하는 두 사람이 반드시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기도하고 있고, 저 사람은 기도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사랑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그 사람은 사랑을 얻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이있는 곳입니다.

네, 맞습니다. 당신의 마음이있는 곳입니다. 존, 프레드가 동남아시아에 있을 때 나는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를 바꾸라, 너는 예수님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다.

응, 응, 응, 응. 예.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기도할 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응, 응, 응, 응, 응. 괜찮은. 예.

57장 14절부터 21절. 이르기를 건설하라, 건설하라, 길을 예비하라, 내 백성의 길에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라 하리라. 자, 그것은 40장과 조금 비슷해 보이지만 40장에는 누가 오나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슈퍼 고속도로를 준비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죄 많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얻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와야 해요.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가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5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통회하는 마음과 겸손.

예, 예, 예. 이 책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 중 하나입니다. 높고 우러러보며 영원히 거하시며 이름이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어머.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가진 자와 함께 거함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어머.

그는 상상할 수 없는 빛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시며, 가장 비천한 마음 속에 계신 분입니다. 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의로움을 자랑한다면 하나님은 여기에 살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 물론, 그렇다면 내가 당신보다 더 거룩하지 않다는 뜻이죠. 우리는 서로보다 더 불경스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 경쟁할 것입니다.

그것은 요점이 아니다. 요점은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회개로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책 전체를 통해 본 주제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신을 높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넘어진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무력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음을 인정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분은 우리를 들어 올리십니다. 자신을 높이고 모욕을

당하십시오. 자신을 모욕하지 말고, 자신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고 그분께서 당신을 들어 올려 그분 옆에 있는 보좌에 앉게 하십시오.

나는 영원히 다투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항상 화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안에서 영이 약해질 것입니다.

내가 만든 생명의 숨결.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우리와의 개입입니다. 내가 몇 년 전에 외웠던 구절에 따르면, 그는 그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긴다.

그는 자녀들에게 동정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체격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먼지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괜찮은. 그러면 16, 17, 18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와 관계를 맺기 위해.

만약 그가 화를 낸다면 그것은 그의 궁극적인 목적일 뿐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나의 대사를 묻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마지막 말씀은 결코 멸망이 아닙니다. 그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마지막 말씀은 결코 멸망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일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가 의도한 마지막 말은 치유와 회복이다.

그리고 만일 그가 나에게 멸망을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나를 멸망시키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낫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나는 치유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적. 그래서 18절에서는 내가 그의 길을 보았으나 그를 고치리라 하십니다. 내가 그를 인도하고 그와 그의 애통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회복시켜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리라.

흥미롭지 않나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를 인도하고 그와 그의 애통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회복시켜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리라. 저게 뭐예요?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

예.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책 전체에서 다시 한 번 본 것입니다. 맵소사, 나는 그의 손을 돌려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그의 손 앞부분을 주었습니다.

그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분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심으로써 다시 킹제임스 언어로 나를 수렁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칭찬을 느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증 모임은 좋은 시간입니다. 정확히.

당신 말이 맞아요. 정확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존심을 유지하는 한 구원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아는 최고의 사람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갈 수 없으나, 우리가 우리의 교만과 자족의 막힌 것을 헐고 우리의 궁핍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와야 하는데 거기엔 정지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점에서 우리는 '그래, 그래, 난 당신이 필요해요'라고 말해야 합니다. 나는 당신 없이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높고 거룩한 분이 이 비천한 집에 거처를 정하십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시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와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종교에서는 자기 신에게 가라고 해야 합니다. 좋아요. 정확히 맞습니다.

기독교에 독특한 신학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이다. 물몬교인들은 왜 그렇게 올바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모르몬교에는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이슬람교도들이 왜 그렇게 올바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렇습니다.

또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체 역사 동안 기독교의 저주가 되어온 것입니다.

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지옥처럼 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말합니다. 그래, 그게 종교라면 오늘은 그런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 그러므로 우리 의 가장 큰 축복은 또한 가장 큰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그는 19절, 20절, 21절에서 모든 사람이 결국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보편주의라는 교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은 그것에 대해 무엇을 말합니까? 예.

네가 계속 불의를 행하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제 흥미로운 점은 이것으로 끝낼 것입니다. 흔히들 말하길,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천국과 지옥의 대안을 본다면, 마침내 하나님이 실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물론 그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자신의 주장을 완전히 확신하는 사람과 논쟁을 벌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얼마나 많은 압도적인 주장을 제시하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논쟁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임종 전환율에 대한 통계는 정말 형편없습니다.

그것은 1퍼센트 정도입니다. 만약 당신이 평생을 당신 자신을 위해 살다가 지금 구원받기 위해 당신 자신을 포기하라는 요청을 받는다면, 그 대가는 너무 높습니다. 정말 너무 높아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땅의 왕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땅의 왕들이 바위에게 부르짖어 자기 위에 떨어져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에서 자기들을 숨기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은 매우 중요합니다.

영원이 저울에 달려 있습니다. 먼 곳과 가까운 곳까지 평강, 샬롬, 샬롬이여, 내가 그를 고쳐 주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어-허, 그래, 그건 평화가 아니야, 스스로 치유하려는 이들에게 평화.

치유가 필요 없는 이들에게 평화, 평화가 있기를. 치유가 필요한 이들에게 평화, 평화를 알고 받아들이면 내가 그들을 치유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조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물은 진흙과 흙을 밀어냅니다.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하시느니라

마지막 한마디, 악인. 그 단어는 본질적으로 신이 없다는 뜻이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네, 만약 당신이 그런 식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샬롬을 주실 수 없으실 겁니다. 그렇죠? 신이 존재하고 나는 신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하실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A,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으로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의로울 수 없다는 부분 B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의로운 내시와 외국인을 귀하게 여기는데 내 백성이 의로운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그것을 스페이드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58장과 59장에서는 정말 강렬해집니다. 하지만 59장 끝에서 우리는 신성한 전사의 계시를 봅니다.

기도하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와서 못 박힌 손을 우리에게 내밀며 이르되, 애들아, 내게로 오라 하니 감사하라.

무거운 짐을 진 채 수고하는 너희 모두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샬롬.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당신을 아이돌로 만드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통해 당신의 선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당신의 자녀가 되기보다는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장치로 당신을 사용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 줘. 높고 거룩한 곳에서 와서 우리 마음속에 거할 길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을 칭찬합니다. 당신을 칭찬합니다. 당신을 칭찬합니다. 아멘.

이것은 이사야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John Oswalt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56장과 57장, 27회기입니다.